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랑가라 대학교 크기는 우리 학교 보단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인문대와 자연과학대 두 개 건물을 합친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된다. 대학 내에는 서브웨이와 스타벅스도 있었고 캐나다에서 유명한 카페인 팀홀튼과 햄버거 가게, 여러 음식을 파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 않아서 자주 안 갔었다. 대부분 점심을 각자 집에서 싸오기 때문에 카페테리아를 비롯해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았다. 학교는 시설이 깔끔하고 컴퓨터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엄청 크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만 지내면 잘 돌아다닐 수 있다.</p>
수업	<p>수업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듣는 영어회화강의 + 캐나다 문화 이해. 이 정도 인데, 사실 정말 지루했다. 같이 간 한국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거나 영어 문법 간단하게 공부, 그리고 판넬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하는 수업도 있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다. 2인 1조로 판넬을 만들어서 3분 정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강사분은 착하시고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친절히 답해주셨다. 그리고 보통 거의 매일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부담스럽진 않았다. 교재 한 두페이지 정도 채우거나 주제를 주시면 그거에 맞게 영작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셋 중 하나였는데 오래걸려도 20분 안에 끝내는 것들이다. 나중에 이 과제들이랑 수업 중에 말하는 것들을 보시고 성적을 주시는데 나는 문화체험이 목적이었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쓰이진 않았다. (물론 성적이 잘 나온건 아니었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하고 1시간 점심시간 가지고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은 15분 정도 준다. 그래서 오후에 액티비티가 없는 날이면 조금 힘들긴 하다.</p>
필드트립	<p>액티비티로 그린빌 아일랜드, 컬링, 밴쿠버 뮤지엄, 밴쿠버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서스펜스 브릿지 이 정도 방문했다. 그린빌 아일랜드는 조를 짜서 현지인들 간단한 인터뷰, 신기한 상품 찾기 등의 활동을 했고, 컬링은 되게 재밌었다. 한 번만 활동한게 아쉬울 정도로. 컬링장이 엄청 추운 것은 아니지만 오래 있다보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것</p>

	<p>을 추천한다. 그리고 손을 쓰기 때문에 장갑을 필수!! 그리고 밴쿠버 뮤지엄은 생각보다 작아서 대충 몇 번 보면 끝나지만 이 것도 조별로 활동하는 게 있어서 나름 재밌었다.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서 조별로 활동하는 게 많아서 그 때 많이 같이 온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것 같다. 아쿠아리움은 조별활동을 없지만 나름대로 구경할만하다. 근데 마찬가지로 엄청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캐필라노 서스펜스 브릿지는 엄청 긴 흔들다리를 건너는데 이게 은근 많이 흔들거린다. 조금 무서웠지만 다리 아래로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았다. 비가 왔지만 우비를 무료로 제공해주어서 우비를 쓰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그쳐서 예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액티비티를 가면서 따로 내는 비용은 없었고 거의 모든 액티비티 장소에 (컬링장 빼고) 기념품샵이 있어서 따로 기념품을 사지 않는 한 추가 비용은 없었다. 액티비티 장소를 갈 때 단체버스(스쿨버스를 탔는데 되게 귀엽다)를 타고갈 때도 있고 시내버스와 스카이트레인(지하철) 등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액티비티가 있는 날이면 오전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긴 하지만 점심시간이 많지 않아서 허겁지겁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3주 플랜을 나눠주긴 하는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우리 때는 컬링 일정이 바뀌었는데 그 공지를 이메일로 해주셔서 못 본 친구들이 컬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집에 다시 다녀온 상황도 있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정말 정말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우리가 갔을 때 갑자기 날씨에 이상이 생긴건지 자주 오지 않는 눈이 엄청 왔었고, 그거 때문에 몇 년동안 휴교한 적 없던 랑가라 대학이 날씨 때문에 하루 휴교했었던 것도 할 정도였다. 일주일 동안은 눈만 봤고 남은 이주일엔 비만 봤다. 밴쿠버에서 다른 건 너무 좋았지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불편하고 사진을 찍어도 너무 우중충했다. 밴쿠버를 겨울에 간다면 모자가 달린 레인 코트 같은 옷을 하나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날씨는 일주일 동안 눈이 와서 좀 추웠지만 우리나라만큼 찬바람이 불면서 엄청 춥지는 않았다. 룽패딩은 안 가져 갔었고 솜패딩으로 버틸만 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옷을 많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옷을 많이 안 가져갔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밴쿠버를 간다면 여름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p>
안전	<p>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겨울이라서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6시 7시만 되도 어두워진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해외라서 되게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이 친절했다. 그리고 자기가 간수만 잘 한다면 뭐 잃어버리진 않는다. 3주동안 다닌면서 위험한 사람한테 위협받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다녀야 한다.</p>

<p>숙소</p>	<p>홈스테이는 경우에 따라 정말 상이해서 운이 맡겨야 하는 것 같다. 나는 운이 좋아서 좋은 홈스테이에서 지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었고 홈스테이 학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일본인이었고 또래였어서 쉽게 친해졌다.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놀아주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그리고 홈스테이 부모님들도 되게 잘해주셨고 말도 되게 천천히 해주시고 열심히 알아들으려고 하셨다. 그리고 가족 분위기가 정말 화목해 보였다. 나랑 다른 홈스테이 학생은 아래층에서 생활했고 나는 복도 끝 방에서 생활을 해서 조용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방도 난방을 잘해주시고 이불도 두꺼워서 따뜻하고 잘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샤워실은 나랑 그 학생과 같이 사용해서 샤워 시간만 맞추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규칙 같은 것은 불 잘 끄는 것과 분리수거, 방 안에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등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고 만약에 저녁을 다른 곳에서 먹고 온다면 오후 4시전에 미리 말해주는 것도 있었다.</p>
<p>식사</p>	<p>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홈스테이)</p> <p>홈스테이가 정말 잘 배정받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음식인데 요리를 잘하셔서 되게 맛있었다.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홈스테이에서 먹는 게 더 맛있을 정도.. 그리고 주로 음식이 쌀 아니면 면이어서 쉽게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신라면이랑 너구리도 끓여주시기도 해서 너무 좋았다. 나는 저녁에 먹은 음식을 도시락에 싸서 다음날 점심에 먹었는데 전 자레인지에 돌려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았다. 그래도 한국음식이 너무 그리운데 다운타운에 가면 한인마트가 있지만 컵라면이나 핫반 같은 건 한국에서 사오는 걸 추천한다. 한국에 비해 너무 비싸다. 작은 종이컵 라면이 하나에 3~4천원 정도. 그래도 사서 먹었다... 밴쿠버에서 밖에서 외식 하려고 하면 한끼에 거의 한사람당 팁 포함해서 2만원 정도이다. 밖에서 사먹는 것도 좋지만 홈스테이 밥이 입맛에 맞다면 집에서 먹는걸 추천한다.</p>
<p>교통</p>	<p>먼저 밴쿠버 가면 캠퍼스 카드를 받는데 이걸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zon1, 2, 3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zon1 캠퍼스 카드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무제한으로 타고다닐 수 있고 다른 zon으로 가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평일 오후 6시 반 이후나 주말에는 다른 zon도 다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나는 홈스테이에서 버스 하나만 타고 쪽가면 바로 대학교가 나왔다. 한 20~25분 정도 걸리는데 아침 출근길에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와야한다. 사람이 꼭 차서 버스 몇 대를 떠나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3,143,000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900,000	
Eta+여행보험	43,000	7,000+35,000
쇼핑	1,000,000	
식비	200,000	
합계	3,143,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에 홈스테이 가족분한테 메일 보내고 챙겨가야할 것, 안 챙겨가도 될 것 물어보시는게 좋아요. 저는 물어봐서 드라이기나 수건 등은 준비되어 있다고해서 안 챙겨가서 짐을 좀 덜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기후에 맞게 옷을 가져가고 꼭꼭 유심을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인천 공항에도 유심을 파는 곳이 있지만 캐나다 유심은 잘 안 팔아요. 팔아도 날짜 상관 없이 총 5기가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현지가서 사기도 하는데 우리는 밴쿠버 공항 도착하면 단체로 버스타고 학교로 가기 때문에 따로 살 시간은 없어서,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해놓고 택배로 받거나 인천공항에서 수령 받는 것이 좋아요. 절대 포켓 와이파이를 사지 마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 못하고 유심 없어서 포켓와이파이를 샀는데 너무 비싸고 무겁고 배터리도 엄청 빨리 달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유심을 사전에 구매 해두는 것을 적극 추천.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모자가 달린 방수 바람막이나 레인코트를 준비해가는 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컬링을 하면서 추울 수 있으니 장갑 필수!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일단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아쉬웠다. 날씨가 흐려서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고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게 제일 아쉬웠고 다른 것들은 좋았다. 타미힐피거나 폴로, 코치가 한국보다 엄청 저렴해서 선물용으로 많이 샀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타미힐피거, 폴로, 코치는 Mcarthurglen으로 가는 것을 추천. 여기 가면 안내데스크에서 10%할인 쿠폰을 주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50%이상 세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할인을 더해서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zon2라 주말에 가는 것을 추천.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선물 같은건 메트로타운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거기에는 베쓰 앤 바디웍스도 있고 캐나다 슈퍼스토어등 드럭스토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다 그리고 쇼핑물이 정말 크다. (3주동안 쇼핑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러 가지 문화도 체험하고 홈스테이가족들과 추억도 쌓고 친구들도 많이 친해지고 너무 재미있었다. 돌아다니다보면 집들이 하나 같이 너무 예쁘다. 집 보는 재미도 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개스타운 증기시계인데 야경이 너무 예쁘다.



너무 재밌었던 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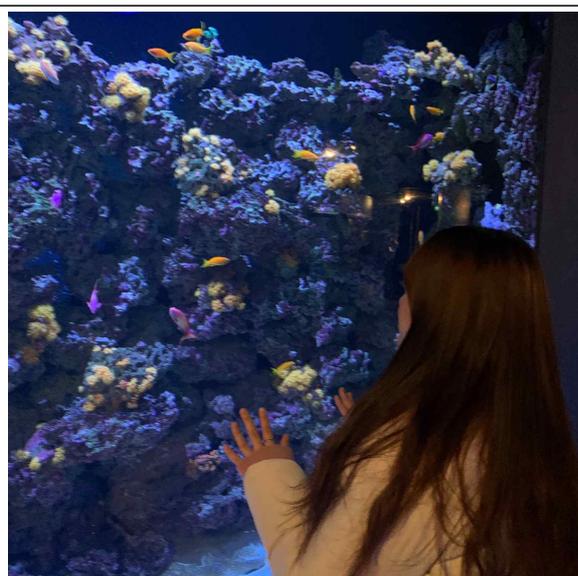
캐필라노 브릿지. 엄청 길고 좀 무섭다.



밴쿠버 뮤지엄.



캐나다 플레이스. 플라잉 오브 캐나다
해보는거 추천! 근데 너무 짧았다.



밴쿠버 아쿠아리움.